

※ 프린트해서 조명박물관 관람하세요. 문제를 다 푼 분들에게는 조명박물관 도장을 팡 찍어드립니다.

1. 전통 조명구입니다. () 안에 이 조명구의 이름을 넣어 보세요.



()

이것의 속에는 말린 쑥과 겨 등이 들어간다. 짚과 풀로 칭칭 동여매어 불을 붙이던 조명구이다. 불을 붙이면 좋은 냄새를 내며 천천히 타고 웬만한 비에도 꺼지지 않았다. 농부들이 들일 나갈 때 담뱃불을 붙이는 성냥의 역할을 했고, 모기와 해충을 쫓는 방충 조명의 역할도 하였다.



()

벽난로처럼 보이는 이것은 화전민촌의 대표적인 등기구로 코쿨 또는 꽃굴이라고 한다. 원시적인 조명시설로 콧구멍 같은 굴이 나 있는 시설이란 뜻에서 그렇게 불리는 것이다. 이 곳에 주로 관솔을 지피는 이유는 이것이 일종의 방안에 두는 화덕이기 때문에 연기가 적고 냄새가 그윽한 관솔이 적당하였기 때문이다.



()

이것은 관솔, 송명(松明) 등으로 불리는 원시조명이다. 소나무의 송진이 많이 곁어 있는 부분으로, 평소에 이것을 따서 모아두었다가 등잔이나 화로, 코쿨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등잔불과 촛불을 대신하였다. 기름 구하기가 어렵고 나무가 많은 산간 지방의 주된 조명이 이것이었다.



()

나무, 짚이나 풀 묶음에 불을 붙인 조명으로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사용해온 조명구이다. 동굴 안을 밝히는 용도로도 쓰였고, 밤에 이동할 때 자주 쓰였다. 전통적으로 정월대보름에는 이것을 이용한 놀이를 즐겼다. 이를 “○○싸움”이라 한다.